

한 달 간의 발리 크루즈 여름학교, 유종의 미를 거두다



카바나투안 시티, 바랑가이 발리 크루즈에서 진행된 여름학교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라온아띠 필리핀 팀 단원들은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청소년, 어린이를 각각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아시아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리크루즈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라온아띠 단원들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다.

<이달의 인물> Valle Cruz Youth 삼총사 '길버트, 켈빈, 김벌린' 그리고 '아비'



라온아띠 팀원들이 이들을 처음 만나게 된 건 3월 21일 Day Care Center 졸업식. 이 때만 해도 라온아띠 팀원과 Valle Cruz Youth, 서로 다른 이들이 지금과 같은 관계를 맺으리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아비, 김벌린의 막내 동생인 미코의 졸업식에 참가하기 위해 Day Care Center를 찾은 이들은 축하 공연을 하던 라온아띠 팀원들을 만나 어색한 첫인사를 나누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또 4월에 시작될 youth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4월 5일, 이들은 모두 Day Care Center를 찾아주었다. 누구보다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수업이 없는 날에도 Day Care Center에 와서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했다. 이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Day Care Center에서의 첫 만남>

못하게 된 사연은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마닐라로 일을 하러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비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단원들과 Valle Cruz Youth들을 더욱 힘을 내어 활동을 해냈다.

또한 이후 Valle Cruz에서 진행된 3박 4일간의 홈스테이는 삼총사 친구들의 집에서 진행이 되어 라온아띠 팀원들과 Valle Cruz 청소년 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했다. Summer School 프로그램은 이번 4월을 끝으로 막을 내리지만 이 둘의 우정을 계속 될 것이다.

아, 그리고 외로움에 지쳐 아비가 다시 Valle Cruz로 돌아온다는 슬프고도 기쁜 소식. 다시 돌아오는 아비를 위해 어떤 이벤트를 할지 벌써부터 라온아띠 단원들과 Valle Cruz Youth들은 즐거운 고민에 빠져있다.

그러나 너무나 갑작스럽게도 아비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아비의 부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단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비가 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커버스토리 -----	1
한 달 간의 발리 크루즈 여름학교, 유종의 미를 거두다 <이달의 인물> Valle Cruz Youth 삼총사 '길버트, 켈빈, 김벌린' 그리고 '아비'	
지역 - Valle Cruz -----	3
라운아띠, 4주간의 여름학교Summer School를 마무리 하다 Valle Cruz의 청소년들 태권도에 빠지다	
특집 <라운아띠, 홈스테이 가다> -----	5
이수진, 많이 컸다! 홈스테이, 추억과 고민을 남기다 리얼버라이어티 3박 4일, In Valle Cruz 오갱끼데스까? 오래된 현재 그러나 멀지 않은 과거	
교육 -----	14
YMCA - RAONATTI 5th Free Taekwondo Class! 영어수업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마닐라 YMCA의 급습	
사회 -----	16
<30문 30답> 필리핀 파견 선배 단원이 말하는 "필리핀 생활의 ABC" 아이타, 그곳에서 있을 일들을 기대하며	
문화 -----	18
라운아띠, 한국문화의 날 개최해 우리의 두 번째 Fiesta! BRGY Luar 피에스타에 가다! Basketball is a language	
생활 -----	20
박진영 단원, 마을 치료사를 만나다. BMW, 한 걸음 더 진화하다 라운아띠, MR양의 18살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아 삼겹살 파티	



지역 - Valle Cruz

"Magandang Umaga Valle Cruz,
Magandang Hapon Philippines,
Magandang Gabi Asia"

라온아띠, 4주간의 여름학교 Summer School를 마무리 하다

카바나투안 시티 CABANATUAN CITY, 프리마베라 FRIMAVERA의 아침. 라온아띠 단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나갈 채비를 한다. 키 패트와 매트, 준비물 상자를 들고 트럭에 올라타 약 30분 정도 이동한다. 도착한 곳은 바로 Valle Cruz Day Care Center. 스무 명 남짓한 아이들이 벌써 단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라온아띠 필리핀 팀 단원 들은 이렇게 매일 분주한 아침을 맞이한다. 그 이유는 바로 Valle Cruz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여름학교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라고 하기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선생님도 없고 책상도 없다. 심지어 학생들은 매일 얼굴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 신고 있던 신발을 내던지고 맨발로 교실 시멘트 바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꾸야(KUYA. 오빠, 형을 이르는 말)도 아떼(ATTE. 언니, 누나를 이르는 말) 바타(BATA. 어린이)도 모두 함께 배운다.



여름학교의 시작

Nueva Ecija YMCA는 1994년부터 Valle Cruz를 마을 조직 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활동해 왔다. Valle Cruz를 YMCA가 마을 조직 활동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쓰레기 산(dump site)으로 대표되는 Valle Cruz 주민들의 생활상 때문이다. Valle Cruz에는 커다란 쓰레기 처리장이 산을 이루고 있다. 그곳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Valle Cruz 주민들을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교육의 필요성조차 느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YMCA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Day Care



Center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Valle Cruz와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마을 조직(community organizing)은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주민들과의 사소한 만남, 주민들 간의 가벼운 교류에서부터 시작한다. Nueva Ecija YMCA 사무총장 모리또의 말에 따르면 '(마을 조직에 있어) 어린이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문과 같다'고 한다. 어린이들과 활동을 하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또 다른 활동이 시작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온아띠 단원들은 3월 중순부터 프로그램 기획을 시작하였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와 친구, 나와 이웃(우리 마을, Valle Cruz), 나와 우리나라(필리핀), 나와 아시아로 점점 시야를 확장하면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3월 말 홍보를 마치고, 4월 4일 여름학교 'Magandang Umaga(Good morning) Valle Cruz, Magandang Hapon(Good afternoon) Philippines, Magandang Gabi(Good evening) Asia'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첫 수업, 그런데 아이들이 없다.

잔뜩 긴장한 채로 만반의 준비를 한 채 Valle Cruz에 도착한 라온아띠 단원

들. 그런데 학생이 한 명도 없다. 알고 보니 그 날은 Valle Cruz 초등학교의 졸업식이 있어 거의 모든 주민이 학교를 간 탓이다. 이렇게 현지 사정에 익숙치 않아 수업이 취소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 마다 단원들은 당황하기도 했지만 더 가까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날의 수업 내용은 취소되고 단원들은 모두 거리로 나갔다. 주민들을 만나며 일일이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렇게 첫 주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거리 홍보 시간을 필요로 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

Valle Cruz Youth

Valle Cruz 여름학교가 지속될 수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구성원은 Valle Cruz 청소년들이다.(자세한 내용은 1면 기사 참조) 제2의 라온아띠 멤버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은 매 수업을 함께 하는 학생이기도 했지만,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꾸야, 아떼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Valle Cruz 어린이들은 영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Valle Cruz 청소년들의 참여는 프로그램 진행에 큰 힘이 되었다. 늘 동네에서 만나는 아떼, 꾸야였지만 Day Care Center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하게 만나면서 서로의

지역 - Valle Cruz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

Day Care Center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기를 원한다. 서로가 알고 있는 소중한 지혜들을 이 곳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 라온아띠 단원들은 비록 8월을 끝으로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다음 기수의 단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가기 때문에 Valle Cruz에서 라온아띠의 실제적인 활동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물론 파견 기간이 끝난다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 4, 5기 단원들과 Valle Cruz 간의 교류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금 하고 있

는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Summer School을 통해서 단원들은 ‘라온아띠 없는’ ‘라온아띠가 없어도 지속가능한’ 활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너와 나, Valle Cruz, 필리핀, 아시아...

처음에는 애초의 기획대로 잘 진행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그램은 기획과 달라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사정에 따른 결정이기도 했지만 기획이 단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던 탓도 있었다.

4월 29일 토요일, 한국문화의 날을 끝

으로 여름학교는 막을 내렸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너와 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풀리지 않는 질문들, 남겨진 숙제들은 앞으로도 단원들에게 끝나지 않는 고민으로 지속될 것이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한 달. 단원들은 Valle Cruz 안으로 한 발 더 성큼 들어왔다.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Youth들을 위한 태권도 클래스, 그리고 조직화 활동” Valle Cruz의 청소년들 태권도에 빠지다



지난 4월 5일부터 동월 28일 까지, 매주 화, 목 태권도 교실이 진행되었다.

이는 매주 월, 수, 금에 진행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One Big Family’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써, 15세 ~ 19세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조금 더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태권도 수업이 진행되었다.

첫 째주는 태권도의 이해를 위한 이론교육 및 기본적 자세와 지르기 수업, 둘 째주는 기본자세 및 발차기, 그리고 셋 째주는 품세 및 문화교류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태권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청소년 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엔 태권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기에 계획된 순서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다.

또한, 라온아띠 단원들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Valle Cruz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리더십 함양의 성격을 띤 활동 역시 동시에 진행 됐고, 그 단위활동으로 29일 있었던 한국문화의 날을 청소년들과 함께 계획하여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특히, 그들은 태권도 클래스에서 배운 품세 중 ‘태극 1장’을 무대에서 선보이면서 그 동안 열심히

같이 닦은 실력을 뽐냈다. 그런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라온아띠와 Valle Cruz 청소년들은 함께 수영을 하러 가거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등 생각과 행동들을 공유해가면서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그런 그들이 함께 해 나갈 앞으로의 활동이 사뭇 기대된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이수진, 많이 컸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가 없는 불편함보다 촛불과 함께 하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겼고 문이 없는 화장실의 불편함보다 문대용으로 나무판자를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트인 곳에서 샤워를 해야 하는 불안감보다는 물을 적게 쓰고 단숨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고, 거실에서 자는 불편함보다 거실에서 자기에 다른 누구보다 더 부지런해질 수 있음에 감사했다.

어느 더운 필리핀의 여름, 난 필리핀의 작은 마을 Valle cruz로 3박 4일 간의 홈스테이를 떠난다. 3월 4일부터 왔다 갔다 하며 지켜보던 마을 속으로, 이제 그들의 삶 속으로 잠시나마 떠나본다. 내가 머문 곳은 라온아띠가 진행중인 Day Care Center의 프로그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Abi, Kimbelyn, Kai-ann, Allen 그리고 Mico 다섯 남매의 집이었다. 사실 홈스테이를 하기 전 날 까지도 어느 집으로 가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도 그건 좋게 말하면 즉흥적인 것을 즐기는 것, 나쁘게 말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의 특성인지도 모른다.

Abi는 19살 소녀로 지금은 Manila에서 가족의 부양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곧 돌아올 예정이다. 아마도 혼자서 남의 집안 일을 하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직은 무섭고 외로운 19살 이기 때문이 아닐까? 둘째 Kim은 15살 소녀로 지금은 집에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지내는 꿈 많은 소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연예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할 때 속으로 아주 많이 아파하고 상처받는 여리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소녀다. 철이 일찍 들어 소녀 같은 풋풋함보다는 언니 같은 성숙함이 더 큰 이 소녀가 안쓰러운 건 나 뿐일까? 다음은 셋째 Kai-ann은 음악을 사랑하고 사진 찍는 것에 환장하는 13살 소녀다. 그녀는 소극적인 둘째 언니를 지켜줄 충분한 용기를 가진 소녀다. 두 동생 고운 미소녀 Allen과 귀여운 미소를 가진 Mico는 각각 10살 6살 소년들로 Kimbelyn의 집의 마스코트들이다. 그녀의 아빠는 직업이 없고 현재 외국 기업에 이력서를 내놓은 상태이지만 답이 오지 않아 자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 당신은 5개의 떠오르는 희망을 가진 행복한 사람인 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 부끄러워서, 나에게 말을 못 걸었던 순수하고 약간은 소심한 아빠였다.☺ 반면 그녀의 엄마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도 항상 행복해 보이고 즐거운 아줌마다. 그녀는 가끔 집안에 돈이 부족할 때 이웃의 빨래를 대신 해주고 돈을 벌어오기도 하지만 항상 웃는 얼굴의 유쾌한 아줌마다. 그리고 마지막, Kim의 할머니, 젊은 시절 사우디에서 일을 했었고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다 하시지만 여전히 그녀의 영어실력은 아주 훌륭하다. 이상으로 나의 홈스테이 가족 소개는 끝!

지금부터 3박4일의 홈스테이 일상 속으로 출발!

첫날 Kim의 집에 갔을 때는 사실 조금 놀랐다. 그녀의 집에 전기가 없는 것도, 화장실 문이 없는 것도, 샤워시설, 심지어 열려 있는 곳에서 샤워를 해야 하는 사실도, 거실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실도 모두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놀랐다. 나는 더 이상 손님이라 아니라 그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가 없는 불편함보다 촛불과 함께 하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겼고 문이 없는 화장실의 불편함보다 문대용으로 나무판자를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트인 곳에서 샤워를 해야 하는 불안감보다는 물을 적게 쓰고 단숨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고, 거실에서 자는 불편함보다 거실에서 자기에 다른 누구보다 더 부지런해질 수 있음에 감사했다.



첫날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촛불 주위로 둘러 앉았다. 손을 사용할 것인지, 스푼을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아줌마에게 난 당연히 그들처럼 손을 쓰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번의 예행연습을 거쳤었기 때문이다. 밥맛은? 완전 꿀맛^~^ 내 손맛이 더해져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다. 계속해서 'napaka napaka napaka masarap masarap'(정말 정말 맛있어요)를 외치면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금 뒤 7시 30분경 잠자리 준비를 마치고 누웠다. 불이 없고 시계가 없어서 그런지 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는 약 3시간 가량 Kim과 함께 그녀의 꿈에 대한 이야기, 나의 가족, 그리고 그녀의 지난 생활들에 대한 가슴 속 이야기들을 나눴다. 다음 날 아침 5시 조깅을 하기 위해 급히 준비를 마치고 Kim을 따라 나섰다. 조깅을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찾길

을 막아 놓은 도로 옆이었다. 찾길을 막아 놓은 도로 옆엔 Valle cruz 와는 사뭇 다른 이층 집들이 줄을 짓고 있었는데 Gilbert는 이 곳에 자신의 'dream house'가 있다며 빨간 지붕을 가진 아담한 집을 가리켰다. 그는 Kim과 그녀의 언니인 Abi의 친구로 17세 college 학생이다. 한 시간쯤 조깅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전날 함께 먹기 위해 사온 한국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리고 오후, Valle cruz의 youth 들과 함께, 그리고 박진영 단원이 머무는 Kelvin의 집 근처 가게 옆에 모여 다같이 할로할로(한국의 팔빙수 같은 것)를 먹으며 홈스테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상의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홈스테이의 첫번째 규칙이 다른 단원들과 만나지 말아야 한다면 뭐래나, 하지만 그 좁은 마을에서 서로 안보고 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특히나 Kim 과 Kelvin은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덕분에 그 핑계로 우리 넷은 더욱 신나게 홈스테이를 즐길 수 있었다.



사실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youth와 함께 머문 나와 박진영 단원은 valle cruz의 youth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아침 6시 기상.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길고 긴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는 다른 youth들을 만나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갈지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운 땀별 아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를 공유할 장소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해가 뜨거운 오후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Kelvin의 집에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해가 진 저녁에는 Kim의 집 앞 가로등불 아래에서 서로 꿈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했다.



홈스테이 마지막날, 그날은 바랑가이테이가 있기 전날이었다. 바랑가이는 작은 단위의 마을을 가리키고 그 날은 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눠먹고 본 축제를 즐기기 전날 전야제 같은 날이다. 친구들은 우리를 위해 관람차가 있고 마켓이 열린 장소로 우릴 안내했다.

친구들은 관람차가 엄청 무섭다고 얘기했지만 난 속으로 '관람차가 무서우면 얼마나 무서울까, 롤러코스터 정도는 타야 놀이기구 좀 탔다 하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엔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었다. 바로 부실한 안전장치 때문이었다. -!!- 오랜만에 놀이기구를 신나게 즐기고 빙고 게임을 구경하고 동전 던지기 게임도 한번 해보았다. 그렇게 전야제를 즐기고 그날도 어김없이 Kim과 함께 다같이 그녀의 집 앞 가로등불 아래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곳엔 별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가로등불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제법 있었다. 그렇게 별이 잘 보이는 장소로 이동해 우리는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순간, 별뚝별이 하나 '슈'하고 떨어졌다. 우리는 서로 방금 별뚝별이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신기해했다.



사실 그 전에 한국에서 그리고 세부에 있으면서 별뚝별을 몇 번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날 다른 기분으로 별뚝별을 보니 너무 반갑고 좋았다. 특히나 그 날의 별뚝별은 이 순수한 발리 크루즈 청년들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았기 때문이다. 홈스테이의 마지막 날은 설레고 들 뜬 마음으로 그렇게 저물어 갔다. 다음 날 아침, 떠날 준비를 하는 내가 미안할 정도로 Kim과 그녀의 가족들은 이제 돌아가면 오지 않을거냐며, 축제가 있는 이틀 동안만 더 홈스테이를 연장해달라고 하라며 연신 나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 특히나 가녀린 My sister kim은 나중에 영영 울어버리기 까지 했다. Kim으로부터 아주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자기가 너무 아이 같았다고 부끄러워하며 미안하다고 나에게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Kim은 감수성이 풍부한 15살 사춘기 소녀가 맞기에 그녀가 운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일, 아니 나로써는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내가 지난 3박 4일 동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만한 생각이 들어서 일까? 사실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가난한 그녀의 집안 형편에 하루에 두 끼만 먹은 적도, 배부르게 끼니를 못 챙긴 적도 그리고 심지어 왜 내가 여기에 선택되어 왔는지에 대한 약간의 불만, 혹은 내가 이 가족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죄책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꼈었다. 하지만 홈스테이 가족들은 나를 딸, 손녀 그리고 언니, 누나로 여기며 편하게 대해 주었다. 난 이 소중한 경험을 그들의 물질적인 생활의 비교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나에게 이번 홈스테이는 나이와 성별, 국경을 불문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를 공유하고, 어떻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고 느끼는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다. 난 이번 홈스테이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자신할 수 있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Kim의 가족들 덕분에……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홈스테이, 추억과 고민을 남기다



사실, 홈스테이를 통해 느꼈던 감정은 솔직히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고, 썩 기분이 좋지도 않았다. 내가 알고 있던 Valle cruz, 그리고 필리핀과는 또 다른 모습의 현실을 하나하나 들춰가는 기분이었고, 자꾸만 마음 한 구석은 아리워져만 갔다.

am 5:30 “꼬꼬르~꼬꼬꼬꼭”

오늘도 어김없이 드세게 울어대는 닭들 때문에 하릴없이 몸을 일으킨다. 3박 4일간 valle cruz의 주민 아닌 주민으로 Kelvin의 집에서 동거동락 했고, 오늘은 그 홈스테이의 마지막 날이다. 무거운 몸을 일으킨 후, 가볍게 몸을 풀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니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그새 나를 주인으로 인지하였는지 사랑살랑 꼬리치며 달려든다.

“아~하!”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여기의 공기는 너무나 좋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필리핀의 공기는 생각보다 탁하다. 거리로 나가면 시커먼 매연이 눈 앞에 마구 휘날리고 여기저기서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에 기침을 콜록 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아침의 상쾌한 공기는 온 몸의 기력을 북돋아 주니 어찌 아침마다 헐떡거리며 숨쉬기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침밥을 준비한다. 여태껏 계속해서 귀빈대접 받으며 밥을 얻어 먹었으니, 내가 한번 대접해야지 않겠는가. 사실, 홈스테이를 하면서 함께 일하고, 요리하면서 같이 땀 흘리고 싶었고, 그게 하나의 목표였지만 내 생각과는 반대로 그러한 것 들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와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이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매우 환대하게 대우한다. 마치 내가 귀빈이 된 느낌이랄까. 실례로, 내가 Kelvin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서둘러 미리 농장 일을 다 마쳐 놓았고, 그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어디 불편한 점이 없는지 수시로 물어보았다. 음식 역시 그의 친척들이 푸짐하게 차려놓은 후, 함께 먹자며 어슬렁거리던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계속 더 먹기를 권하였다. 때문에 마지막 날인 오늘은 기필코 내가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싶었고, 아침 일찍이 Kelvin과 함께 요리 재료를 사왔다. 아침 메뉴는 ‘주먹밥’. Kelvin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으로 전부터 요리법을 배우길 원한다고 말했기에 오늘은 함께 주먹밥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렇게 마지막 아침식사를 먹은 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어느새 Mr.Morito가 홈스테이의 마침을 알리며 나를 데리러 온다. Primavera로 돌아가는 트럭 뒤에 앉아 다른 멤버들과 홈스테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 그 짧았던 3박4일의 기간들이 필름 속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치운다. 함께 기타치며 노래 부르던 순간, 사진작가가 꿈이러던 Kelvin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마을을 돌아다니던 순간, 좁은 침대에 누워 잔잔한 음악소리에 파묻혀 잠을 청했던 순간, 어두운 밤 조그마한 가로등 불빛 아래 모여서 친구들과 수다 떨던 순간. 그 순간 순간의 기억들은 하나 하나의 추억의 조각이 되었고, 말로써, 또는 글로써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기는 힘들다. 다만, 내가 홈스테이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분명

히 있고, 이 감정은 차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한 번 짚어나가고 싶다.



지역사회 깊숙이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나는 확실히 Valle cruz를 더 알아갈 수 있었고, 필리핀의 생활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추억으로 남겨진 찰나의 기억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보다는 ‘희망’을 보라고 말하며 나 또한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자꾸만 내 눈 속엔 ‘절망’, ‘안타까움’, ‘연민’의 장면들만 들어온다.

사실, 홈스테이를 통해 느꼈던 감정은 솔직히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고, 썩 기분이 좋지도 않았다. 내가 알고 있던 Valle cruz, 그리고 필리핀과는 또 다른 모습의 현실을 하나하나 들춰가는 기분이었고, 자꾸만 마음 한 구석은 아리워져만 갔다. 무엇보다 확실한 건,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필리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동정심’이라는 무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Valle cruz에서 생활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나만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 나도 모르게 한국,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Primavera와 Valle cruz를 비교 하고 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하건대, 아마도 지금 내가 판단하는 ‘삶의 질’ 또는 ‘행복’의 기준은 ‘풍요’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 속에서 Valle cruz, 더 나아가 필리핀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온다.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까’, ‘어떻게 길 건너편은 대형쇼핑몰이 즐비해있는데, 그 맞은편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들이 빼곡히 자리잡아 마을을 형성하고 있을까’, ‘도대

특집 <라온아띠, 홈스테이 가다>

체 답은 뭐고,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우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답은 모르겠다. 그리고 필리핀에 이제 고작 2개월 머문 햇병아리인 내가 이

렇다저렇다 왈가왈부하기에도 부적합한 것 같기에 크게 소리 쳐 말하기도 싫다. 다만, 지금까지의 필리핀에서의 삶을 통해 느낀 내 생각과 점점 연민의 정으로 필리핀을 바라보는 나 스스로에게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기고,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상기시킬 뿐이다.

요컨대, 홈스테이를 통해 많은 추억을 얻음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던져진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문제' 만을 골라서 찾아보고, '절망'의 결말을 도출하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로이 느끼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필리핀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떠날 때 즈음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길 기도한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리얼버라이어티 3박 4일, In Valle Cruz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은 배고프거나 물이 마시고 싶으면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간다.
그러면 집주인은 아무 거부감 없이 물을 따라주고 밥을 챙겨준다.
한국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부러웠다.
그들만의 정과 신뢰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생활한지 어느새 2개월 쯤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많은 필리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집과 매일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진심으로 그들의 생활이 궁금했다. 전기가 없는 방은 어떨까? 마음 놓고 용변을 보고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은 어떨까? 모기를 비롯해 각종 벌레들이 들끓는 그런 곳에서의 하룻밤은 어떨까? 물론 이러한 곳을 경험 못 해본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캠핑이나 그 밖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런 곳보다 더욱 불편한 곳에서 잠을 청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고 필리핀에서는 바로 그런 곳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나 직접 경험에 보기 전에는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라 그런지 결국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그저 '경험해보자!'였다.

그러나 막상 3박 4일간, 그것도 4월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매일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바쁜 때에 홈스테이를 한다니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경험해보자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기대했던 내 모습은 기억 저편에 꼭꼭 숨겨 놓고 휴지는 있을까? 벌레는 어떡하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4일 동안 해야 할까?. 출발 직전까지 고민하고 또 걱정했다. 걱정을 한 가득 안고 시작 된 3박 4

일간의 짧지만 긴 홈스테이. 과연 어땠을까?

한마디로 '울며 들어가 웃으며 나왔다!'

<첫째날>

이미 홈스테이 장소가 정해진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나는 출발 전 날까지 호스트가 정해지지 않아 불안했다. 오전 10시쯤 BMW를 타고 Valle cruz로 향하는 길이 너무나 짧아 차에 핑크나 닳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이런 와중에도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던게 누군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생각하며 내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어쨌든 Valle cruz에 무사히 도착해서 늦은 아침 식사와 함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각자의 홈스테이 장소로 이동했다. 내가 제일 첫 번째였다. 메인 스트리트에서 한참을 떨어진 외진 곳에 진짜 혼자서! 뚝! 떨어졌다. 날 내려준 차는 내 마음도 모르고 저 멀리 떠나가고 나는 혼자 떨어지자마자 마을 아저씨들의 초대 아닌 초대로 음주가무를 즐겼다. 하하하..... 하느님이 내 고민을 듣고 도와주신 걸까? 그날 따라 내가 머물 호스트의 집 마당에서 이웃분들이 술자리를 가지고 계셨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내가 그 자리에 끼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이웃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많은 친구(대부분 삼촌 뺄)를 만들어 4일간 오고 가며 Oh! My friend!라고 외치며 즐겁게 보냈다.

특집 <라온아띠, 홈스테이 가다>

3박 4일간 내가 지낼 곳이 호스트는 바로 Ate Rose였다. DCC의 핵심 아줌마 멤버이자 가장 활발한 학생 중 하나인 Ashley의 어머니인 Rose는 말수도 적고 조용한 분이였다.

구면이지만 그래도 인사를 정식으로 하고 내가 지낼 방을 소개 받았다. 방은 넓고 깨끗했다. 침대도 있었고 화장실엔 샤워실도 있었다. 이게 뭐야? 별일이였다. 처음엔 없을까봐 걱정하더니 이젠 있어서 아쉬워했다.



어쨌든 첫 날은 Ate와 Kuya, 그리고 Ashley와 친해지느라 바빴다. 되지도 않는 영어를 쓰는 나와 영어를 아예 못하는 Ashley. 그래도 우리는 즐거웠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과자를 먹으면서 그냥 웃고 떠들고 참 여유롭고 평화로웠다.

시간은 금방 갔다. 주위 이웃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식사 때엔 손을 사용해 김치와 김 등 한국 음식을 먹었다. 김치가 너무 매워서 나도 못 먹겠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을까 물이 한 통을 다 마셔가며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웃어가며 정말 즐거웠다.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쨌든 다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나도 못할 건 없었다. 그래서 다짐했다 안 씻으면 안 씻는 대로 살고 휴지가 없으면 물을 쓰고, 모기가 많으면 적선하는 셈치자고. 마음을 편히 먹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날>



아침 6시 기상! 너무나 화창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나니 7시. Ate가 일어나길 기다려 같이 밥을 먹

고 나니 왠지 한가했다. Ashley와 나는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사진 찍기 좋아하는 Ashley는 참 독특한 아이였다.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나를 잘 따라와 주었고 가끔 보여주는 예측 불허 돌발 행동은 나를 찢찢매매게 만들었지만 너무나 즐거웠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학생인 이스마엘의 집에 들려 이야기를 나누고 의자에 앉아 동네 아이들과 초등학교 때나 가지고 놀던 판박이를 붙이면서 제대로 붙여지지 않을까봐 마음 졸이고 술래잡기를 하고. 한국이었다면 집에 들어 앉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앉아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 할 텐데. 지루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여유로웠다. 그러다 보니 생각할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 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아직 결론은 못 내렸지만 하하……) 늦은 오후에는 수진언니와 킴, 길버트가 나를 만나러 멀리까지 와주어 다른 팀 멤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또 밤은 왔고 Ate와 내가 챙겨온 사진들을 보면서 남자친구 이야기부터 지금 Ate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Valle cruz에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필리핀의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어두웠다.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해 자신의 삶을 바꿀 조그만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방법을 모르는 나는 그저 잠자리에 들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다. 마음이 왠지 무거웠다.

<셋째날>

필리핀의 아침은 항상 화창하다. 그리고 똑같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하고 이웃집 소녀인 Jhaizelle을 만나 아이들과 인근 물가로 피크닉을 갔다. 간식을 먹고 사진 찍고(필리핀 아이들은 모두 모델이다. 사진 찍을 때 포즈가 정말.. 말이 필요 없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지루하기 짝이 없을 이 시간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즐거웠고 편안하게 너무 신기했다. 오후에는 Ate의 고모네 집에 방문해 코코넛을 따먹고 다양한 과일을 직접! 나무에서 따 먹었다. 대부분 한국에는 없는 것들이어서 더욱 맛있었던 것 같다. 돌아오는 길, 내 손에는 과일이 한 가득이었다.

이 날 피크닉 가는 길에 있던 풀 때문에 다리를 많이 베었는데 고모가 내 다리를 보시고는 직접 손에 약을 덜어 처음 보는 사람의 몸을, 게다가 다리를 직접 만져주셨다. 필리핀은 정말 신기하다.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은 배고프거나 물이 마시고 싶으면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간다. 그러면 집주인은 아무 거부감 없이 물을 따라주고 밥을 챙겨준다. 한국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부러웠다. 그들만의 정과 신뢰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상이 변해도 나는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뺏속까지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화 되어가는 한국 문화는 이 곳과 비교하여 너무나 각박하고 무서운 세상인데 말이다.

고모네 집에서 돌아와 월요일에 시작될 바랑가이 데이 전야제로 준비된 챔피언쉽 농구경기를 관람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든 시간은 12시. 오늘이 이 곳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재미있고 바쁜 하루였다. 아니,

정말 아쉬웠다. 이제 정말 이 곳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으로 밥 먹는 것이 숟가락, 젓가락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마치고 앉아 마시는 주스 한 잔도 좋았고 각종 필리핀 음식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도 좋았고 심지어 이젠 코코넛도 맨 손으로 깎 수 있었으니 얼마나 아쉬웠을까.

<넷째날>

마지막 날 같지 않았다. 바랑가이 데이 음식준비로 새벽 4시에 일어나 Ate와 함께 새벽시장에 다녀왔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각종 야채를 함께 다듬고 집안의 모든 커튼을 새로 달고 오리 잡고 닭 잡고(채식주의자가 왜 채식주의를 고집하는지 알게 되는 날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바빴다. 2시쯤 되어 잠이나 집안 청소를 하는데 Kuya Alex와 Morito가 나를 데리러 왔다. 웬지 이상했다. 가방을 챙겨 나서며 마을 사람들과 Ate와 인사하고 차에 올라탔는데 오히려 잠깐 놀러 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분명 집에 가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지난 4일간 나는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적응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필리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상이나 문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좋았던 점에 물어 그 것마저도 좋은 경험이자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 Ate Rose를 비롯해 러셀, 자이젤, 렉시, 저스틴, 자레드. 소중한 인연을 얻은 것에도 감사한다. 매운 김치를 나눠먹고 엄청나게 짠 아도보와 맛있는 따홍(한국의 홍합탕과 비슷하다.)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필리핀 드라마를 보고. 그 순간들을 일일이 글로 옮기기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지난 4일간의 홈스테이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졌다.

그래도 글의 끝은 맺어야겠지?

한마디만 하자.

‘울며 들어가 웃으며 나왔다! 경험하고 성장하자!’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오갱끼데스까?



분명한 것은 코지라는 일본이름을 가진 아이가 Valle Cruz에서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 이다. 벌써부터 10년 혹은 20년 뒤 이 아이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그 동안 한국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 할 것 없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단일 민족국가라는 한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변화들을 야기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한국 속에 있으면서 그 문제의 한 단면만을 보아 왔지 가족을 해외로 떠나 보낸 나머지 가족들의 생활에 관해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던 나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바로 Valle Cruz에서 홈스테이를 시작 하게 되면서.

2010년 4월 21일. 날이 밝았다 오늘을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홈스테이가 시작 된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약간의 혼선으로 인하여 집이 정해지지 않았고 당일 날 코우지로(줄여서 코지) 라는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를 둔 어린 소년의 집에서 알게 되었고 오후가 되어서 도착하게 되었다. 부모님과 동생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 할머니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4가구가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룬 형상이었다. 아직도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할머니는 볼일을 보러 나가시고 나는 할머니의 며느리에게 맡겨진 채 코우지로와 함께 집 여기저기를 둘러 보았다. 그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집 곳곳에 걸려있는 일본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의 사진

그리고 일본에서 건너온 각종 전자제품 및 장난감들 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세련된 모습의 할머니는 상자에 강아지 세 마리를 담고 또 다른 손녀딸을 손에 잡은 채로 곧바로 나를 이끌고 내가 머물 방으로 안내했다. 사실 나는 적지 않아 당황 했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잘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다른 친구들을 각각 다른 집으로 떠나 보내며 여러 집을 방문했던 나로서는 Valle Cruz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 하기 어려웠다. 잠시 후 일을 나갔던 집안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해지고 시간이 흘러 마을에서의 첫 번째 저녁을 맞이하였다. 할머니께서는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라고 하시며 내 집 같이 편하게 여기라고 하셨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 서성이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아는지 아떼 그레이스(할머니의 첫째 며느리)는 나를 이끌고 젊은 아주머니들이 모여있는 술 자리로 안내 했



다. 그렇게 한잔 두잔 술이 들어가자 언어문제로 통하지 않던 대화도 이어지기 시작 하며 어느새 편안해 졌다. 7.2%의 Colt 45의 가공할 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잔 하나로 돌아가며 먹는 필리핀의 스타일 탓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취기를 느끼고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하루 밤을 보낼 수 있었다.

2010년 4월 22일 둘째 날이다. 새벽 5시쯤이었을까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 나 뿐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새벽부터 울어 되는 강아지 탓에 눈을 뜨고 살며시 도둑 걸음으로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한가지 나는 혼자 모기장이 있는 침대를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길에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침대 옆에 있는 덕을 넘고 다음으로 할머니의 넷째 아들 이복을 넘고 코우지로와 할머니 사이를 지나 슬며시 나가는 길이 이렇게 멀 줄은 몰랐으며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이미 최고의 손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울고 있던 강아지 두 마리를 손에 쥔 채 거닐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는 한 손에 따듯한 커피를 쥐어 주셨다. 그렇게 하루는 시작 되었다. 둘째 날은 코우지로의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침은 추수해 놓은 벼를 햇살에 말리는 일로 시작한다. 일을 도우면서 딸 셋을 둔 할머니의 셋째 아들은 자신이 마을에 펌프를 설치하는 일을 한다는 것과 할아버지의 1.5 헥타르 정도 규모의 논에서 가족들이 일을 돕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아침부터 고기 반찬과 함께 나의 3일간의 보모역할이 시작 되었다. 아침을 먹자 가족들은 이렇다 할 말들 없이 트라이시클을 탄 채 어딘가로 다 떠나 버리고 코우지로, 코타루, 케이트, 틴틴, 클링클링, 저스틴, 자스민 그리고 주시엔 이렇게 8명의 아이들과 아메 엘렌 그리고 할머니와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다같이 뛰어 노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가족들간의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느낀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자손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의존을 한다는 것이었다.



2010년 4월 23일. 오늘도 어김 없이 5시 반이면 눈이 떠진다. 그리고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아침 일과를 시작 한다. 나도 시골에서 자라나고 군대도 다녀온 못할 것 없는 사람이건만 여기선 여전히 나를 귀한 몸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허리를 다친다며 쌀자루를 못 짚어 지게 하는 것 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사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런 건 아니지만 할머니께서는 나를 보모라는 기대 역할이 있으므로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 밖에. 이제 아이들도 나를 쿠야 삼페

이(현지 이름)라 부르며 어딜 가거나 따라 다니며 작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마다 나를 부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코우지로의 새로운 모습이다. Day Care Centre에 공부를 하러 나왔을 때 한 없이 조용 하고 순진한 아이이지만 집에서는 부모와 오랜 시간 떠나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 서인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 하고 욕심 많은 아이이다. 그리고 오늘은 놀랍게도 코지의 어머니께서 보내준 랩탑을 이용하여 일본에 있는 어머니와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인터넷 연결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간단한 가족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 오늘은 코지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찾아갔다. 그리고 나는 그 터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코지의 이모에게 코지의 어머니와 동생이 언제 돌아오기에 집을 짓냐고 물었더니 “Whenever she wants” 라고 짧게 답해 주었다.

2010년 4월 24일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이제는 새벽이면 커져가던 강아지의 울음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다. 어느새 나나 강아지들이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나에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오늘도 여섯 살의 코지는 MP3에 헤드폰을 쓰고 한 손에는 어느새 나의 카메라를 자기 물건 마냥 돌아다닌다. 4일 동안 언어문제로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물어보지 않고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과연 부모가 가족의 생활을 위해 해외로 일을 찾아 나서고 아이의 생활비 및 교육비등을 본국으로 붙여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도 남았다. 분명한 것은 코지라는 일본이름을 가진 아이가 Valle Cruz에서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 이다. 벌써부터 10년 혹은 20년 뒤 이 아이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4일간의 홈스테이를 통해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도 분명 많지만 마을 조직활동을 위해 온 우리들 없이도 사람들은 그들만의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남은 3개월 안에 분명 해결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더 큰 고민을 안긴 채 다시 프리마베라 홈으로 향했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오래된 현재 그러나 멀지 않은 과거



마을의 모든 집에는 문턱이 없다.
 위낙에 한집 건너마다 친척이고, 친척의 친척이며, 오래된 이웃인 돈독한 관계이다 보니
 왕래가 자유롭고 항상 시끌벅적하다.
 나의 집에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는 건 불쾌하거나 귀찮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가운 일이다.
 언니가 자주 이야기해 주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마을은 하나의 큰 가족과 같다.'

발리 크루즈에 온지도 벌써 두 달째이다. 그러나 3박 4일 간의 짧은 홈스테이는 발리크루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내가 생활하게 된 곳은 아떼 마이에의 집이다. 아떼(언니)는 Nueva Ecija YMCA의 사무원으로 10여년 넘게 오랫동안 근무해온 여성이다. 우리들에게는 유쾌한 웃음소리와 특유의 명랑함으로 팀원들을 잘 보살펴주는 고마운 언니이기도 하다. 언니의 집으로 홈스테이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졌다. 만난 지 그리 긴 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몇 번의 만남으로부터 생긴 언니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언니와 그녀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기쁨이 더 컸다. 그리고 3박 4일 간의 홈스테이 기간 동안 믿음은 더 돈독해졌고, 기쁨은 지속되었다. 나에게 홈스테이는 과거의 저 멀리 살고 있는 친척집으로 놀러간 여행과 같았다. 하지만 여행이 아닌 일상, 과거가 아닌 현재, 먼 곳이 아닌 내가 발붙이고 있는 '여기'의 이야기이다.

하나의 큰 가족



언니의 집에 가려면 앞집을 거쳐서 들어가야 한다. 그 앞집은 언니의 오빠 집이자 언니의 엄마 구멍가게(sarisari

store-"LITA'S STORE")이다. 그렇게 오빠의 집을 걸쳐서 들어가면 함께 쓰는 펌프가 나오고 모두가 앉아 쉴 수 있는 오두막이 있다. 닭과 오리가 줄지어 지나다니고, 개 '섹시 sexy'가 낮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보이는 청록색으로 예쁘게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작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 언니의 집이다. 집에 들어서면 거실 가장자리에는 빙 둘러 의자가 놓여 있어 항상 여러 사람들이 앉아 티비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눈다. 커튼으로 구분해 놓은 건너편에는 작은 주방이 나오는데 이 역시 항상 열려있어 그냥 언니네 집에 잠깐 들렀다 하더라도 어느새 자리를 잡고 함께 밥을 먹는다. 거실의 왼편에는 방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저런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다.

이게 언니네 집 풍경. 그리고 내가 4일 동안 지냈던 생활의 일부이다. 마을의 모든 집에는 문턱이 없다. 위낙에 한집 건너마다 친척이고, 친척의 친척이며, 오래된 이웃인 돈독한 관계이다 보니 왕래가 자유롭고 항상 시끌벅적하다. 나의 집에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는 건 불쾌하거나 귀찮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가운 일이다. 언니가 자주 이야기해 주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마을은 하나의 큰 가족과 같다.'

홈스테이를 하던 첫 날, 언니의 할머니 집에 갔다. 그 곳에서 정말 많은 친척들을 만났다. 특별한 날이었던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많은 친척들의 집을 방문했다. 특별한 용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인사를 나누고 짧은 이야기와 함께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웃었다.

난 지금은 사라진 오래된 풍경이 떠올랐다. 외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 우리 가족은 자가용도 없었고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하루에 몇 번 다니지도 않는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지나 할머니네 집에 곧잘 갔었다. 가면 많은 친척들이 있었고 처음 보는 이웃집 아이들과도 마을 곳곳을 누비며 뛰어 놀았다. 할머니네 집은 수도(水道)도 없고, 나무로 불을 지펴서 밥도 짓고 방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불편한 집이었지만 싫지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도 사라져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친척간의 왕래도 뜸해졌다.

나에게는 지나간 과거이지만 이곳에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 풍경이 난 신기했다,

편리한 TV 안 세상과 불편한 TV 밖 세상

샤워를 한번 하려면 한참을 펌프질을 해서 내가 쓸 물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설거지도 물을 길어 와서 해야 한다. 요리를 하려면 아궁이에 불을 때야 한다. 세탁기로는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빨래를 하려면 반나절이 넘게 걸린다. 그러나 TV를 켜면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화려한 광고들, 미국에서 만든 쇼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 곳에서도 아이폰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아이폰을 가질 수는 없다. 아침이면 언니의 아들 맥스가 크게 쳐놓은 한국의 최신 유행가가 들린다. 난 매일 아침 그 유행가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곤 했다.

생활은 생각보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언니는 ‘이런 모습이’ 부끄럽다고 이야기 할 때가 있었지만, 모든 게 훌륭했다. 맨발로 생활하는 건 편했고 펌프질도 힘들지 않았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놓고 물을 쓰면 내가 얼마나 물을 쓰는지 모른 채 엄청 쓰게 되는데, 이렇게 물을 쓰니 내가 쓰는 물의 양도 알고 많이 쓰기도 어려워져서 물도 아끼고 운동도 되고 좋다.’고 말했다. 빨래도 꼬마들과 물장난 치면서 하다 보니 힘든 줄 몰랐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이 생활은 나에게 ‘특별한 경험’에 불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난 어린 친구들과 놀듯이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지만, 언니는 매번 그 일을 반복해야 하고 언니가 말했듯이 ‘이런 집안일을 모두 하다 보면 나나이(엄마)의 하루는 너무 짧다.’

나는 먹을 만큼 요리를 해서 먹고, 쓸 만큼 물을 길어 쓰고, 어두워지면 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일어나는 이 불편한 생활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다.

TV를 켜면 편리하고 화려한 생활이 펼쳐진다. 그러나 TV를 보고 있는 TV 밖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결코 그 화려한 생활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생각을 하는 나는 결국 TV 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친구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언니 집, 언니의 오빠 집, 언니의 언니 집 모두 다니면서 볼 수 있었던 공통점은 지난 기수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집안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가족들은 지금도 지난 기수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워

한다.

나쁜 오후, 집 앞에 테이블을 펼쳐 놓고 언니와 어린 친구들에게 따갈로그어를 배우고 나는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었다. 서로가 궁금해 하는 문장을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완성한 문장은 “오란 오빠(지난 기수 단원의 이름) 보고 싶어.” 나는 궁금했다. 왜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는 걸까? 그러나 생활을 하면서 함께 추억할만한 소중한 것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며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다. ‘친구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지난 추억만을 다시 떠올리며 지속하는 관계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보다 우리는 왜 서로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이런저런 질문들에 머리가 아파오자 무엇보다도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하고 좋아서 너무 짧게 느껴지는 홈스테이 기간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결국으로 보기에 답은 점보다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은 우리. 그러나 함께 감정과 생각들을 공유하며 가까워진 우리. 그리고 몇 개월 뒤 헤어져 각자의 삶으로 나뉘어지게 될 우리. 앞으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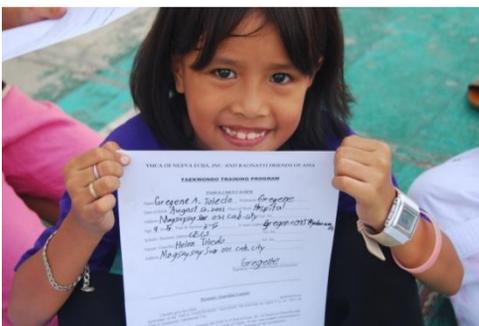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YMCA – RAONATTI 5th Free Taekwondo Class!

한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무료 태권도 교실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다. 4월 4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월, 수, 금 오후 4시 30분 YMCA 빌딩 앞 다목적 코트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다목적 코트라고 하기에는 형편없이 벗겨진 페인트 칠로 라인은 이미 알아볼 수도 없고 그나마도 위험하기 그지 없는 시멘트 바닥이다. 또한 지붕이 없어 온종일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는 코트는 해가 진 후에도 여전히 맨발로 디디기 어려워 변변한 운동화 하나 없는 학생들에게는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호기심 반, 배우겠다는 의지 반으로 모인 평균 연령 7세 학생들의 뚝뚝뚝한 큰 눈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1주차 수업은 이론 수업과 기본동작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수업에서는 태권도의 어원과 역사, 정신, 품세의 뜻과 목적, 겨루기, 한국어로 구성되어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 교육 하였다. 기본동작은 차렷, 준비자세와 주춤서기, 지르기, 앞차기, 돌려차기 등을 반복 학습 하게 된다. 2주차에서는 품세를 학습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습득 속도에 따라서 태극 1장부터 고려까지' 차근차근 학습하게 될 것이고 3주차에서는 '케로로' 음악을 배경으로 구성된 초등용 태권체조를 교육하여 시작, 정리 운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4주차에서는 겨루기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매 수업마다 바뀌는 학생들의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친밀감 형성을 위해 간단한 놀이를 실시하고 수업 중간에 5분의 휴식시간을 두어 어린 학생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YMCA - 라온아띠 무료 태권도 교실의 수업 모습은 어떨까? 그들의 뜨거웠던 첫 수업. 동행해 보았다.



그 수업에서는 무슨 일이? 제 1교시, 안녕하세요!

4월 4일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첫 수업이 진행되었다.. 일주일 간의 거리홍보와 포스터 작업으로 이 날 수업에는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 인기와 관심을 실감 할 수 있었다. 기대 이상의 학생들 수 뿐만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특성상 주변사람들의 시선 또한 많았기 때문에 처음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는 라온아띠 멤버들의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다. 학생 개개인의 수업 참가 신청서 작성과 출석부를 위한 사진 촬영으로 시작된 수업은 조현경 단원이 준비한 이론수업과 기본동작, 정리운동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첫 수업인 만큼 학생들간의 딱딱한 분위기와 멤버들과 학생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자 준비한 ICE- BREAKING 시간은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 그리고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한낮에 비해 많이 선선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닥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음, 결정적으로 교사로 참여한 멤버들간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지 않아 수업 중반 즈음엔 많이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학생 한 명이 넘어지며 부상을 입고 고무매트의 필요성과 수업 특성상의 위험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진행된 이 날 수업은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 그들에게 남은 문제는 이 날 드러난 몇 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수업

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여 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4월 25일의 수업은 어땠을까?

Walang problema? Or not?

4월 25일 오후 4시 30분. 첫 수업의 뜨거운 열정이 계속되었다면 한창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공터는 텅 비어있었다. 웬 일일까 주위를 살펴보니 보이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간판 하나에 그려진 화살표 하나. 화살표를 따라 옮긴 발걸음은 곧 새로운 수업장소인 YMCA 건물 내에 위치한 방으로 이어졌다.

의외로 방은 조용했다.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저 외국인들 보러 온 아이들이 전부였고 멤버들조차 각자의 할 일만을 묵묵히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실패한 것이다.

완벽한 실패였다. 서면상으로는 완벽했던 그들의 수업계획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씨와 너무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수업의 내용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또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매번 바뀌는 상황에서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 거의 매일을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 저조한 참여율과 그나마 수업에 나오는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라온아띠 멤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어떻게든 수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자 매일 저녁 대책 회의를 거쳐 수업의 구성을 좀 더 탄탄하고 세밀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따갈

로그어와 영어에 능통한 지인을 섭외하여 어린 학생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총 책임을 조현경 단원은 '초등 이전의 학생들 교육 경험 부족과 미처 생 <14면에 이어서> 각지도 못한 세세한 문제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교사로 참여한 우리들도 충분한 연습시간을 갖지 못해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 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듯 문제는 확실히 있었고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해결방안으로 마련했던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제 남은 수업은 단 2번. 그들에게 남은 학생들은 2-3명 남짓의 어린 학생들 뿐이었다. 남은 수업 동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지는 그들의 손에 달렸다. 비록 실패한 프로그램이 될 지라도 라온아띠 멤버들과 학생들은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추억이 될 것이고 실패와 반성 그

리고 6월에 있을 또 다른 기회에서 멤버들 자신과 그들의 수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Oh Captain, My Captain"

영어수업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지난 4월8일, YMCA 사무실에서 Maam Diosa와 함께하는 마지막 영어수업이 있었다.

3월 8일부터 시작하여 한 달 동안 진행된 이 수업은 다양한 주제를 통한 개인 프레젠테이션, Nueva Ecija High School(이하, NEHS) 학생들과 함께 하는 그룹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특히,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NEHS 학생들과 함께 파티를 가졌고, NEHS의 Aerial 학생은 라온아띠 단원들을 위해 멋진 오르간 연주를 준비하여 선보였다. 이에 답하여 라온아띠 단원들 역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여 무대를 꾸몄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무대공연은 '이상엽 단원'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수진 단원'이 애국가를 열창하였고, 이어서 '김이민정 단원'의 식전 기도, '박진영 단원'의 환영사가 있었다. 그리고 다 함께 한국가요를 합창하였고, 뒤이어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인 'Jollibe 사건'을 영어 연극으로 각색하여 선보였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가려져있던 'Jollibe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NHES 학생들과 Maam Diosa는 박장대소할 수 밖에 없었다.

끝으로, NHES 학생들이 준비한 음식과 라온아띠 단원들이 준비한 피자를 먹으며 그들의 영어수업은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라온아띠의 영어선생님인 'Maam Diosa'는 라온아띠 멤버들에게 "라온아띠 5기는 최고의 학생들이었고, 너무 즐거웠다. 나의 NEHS 학생들과 함께 한 번 너희들의 집에 놀러 가겠다. 그리고 6월 달에 학교로 초대할 것이니 기다려라"라고 말해 그들과의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님을 되새겼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마닐라 YMCA의 급습

2011년 4월 6일 아메 엘시를 비롯한 4명의 마닐라 YMCA식구들이 라온아띠의 한달 생활을 점검하고자 YMCA Nueva Ecija를 방문하였다. 그들의 갑작스런 숙소방문은 라온아띠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대략 한 달 만에 만나서인지 그저 즐거워만 보였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경이롭도록 청결한 집 상태에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들이 하루 전 날 장장 3시간에 걸친 대청소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가볍게 모닝 커피를 즐긴 그들은 각각의 일정에 따라 YMCA직원들은 사무실로 그리고 라온아띠 멤버들은 이제 막 시작한 Day Care Centre 교육 프로그램 일정으로 인해 Valle Cruz로 향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다시 만난 그들은 쿠야 텍스가 준비한 마을조직활동 세션에 참가하고 곧바로 라온아띠 한 달에 관한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라온아띠의 프레젠테이션은 한 달 생활에 대한 느낀 점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저녁에 예정되었던 일정이 갑작스럽게 오후로 당겨진 탓에 라온아띠 멤버들은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언어적 문제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멤버들이 통역을 해주며 배우고 느낀 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을 전체적으로 진행 하였던 이상엽(27) 라온아띠는 "약 한 달간 인터넷, 전공서적, 신문등과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매체를 접하지 못한 채 생활 하였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는 또 다른, 좁은 강의실 안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 경험들은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다. 다른 멤버들도 전반적으로 한달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YMCA가족들도 라온아띠 멤버들의 한 달간 생활에 격려를 보내고 남은 생활에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30문 30답> 필리핀 파견 선배 단원이 말하는 "필리핀 생활의 ABC"

Q 1. 활동지역은 어디인가요?

A 1.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3시간 거리에 있는 Nueva Ecija (한국어로 '도'의 개념) 지역의 Cabanatuan City에서 활동합니다.

Q 2.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일을 하나요?

A 2. 주 활동 무대는 Valle Cruz라는 마을에서 조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alle Cruz는 Cabanatuan City의 dump site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Q 3.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A 3. 현재 아이들에게 태권도 교실을 비롯한 교육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교육활동은 단지 마을 조직 활동의 일부이며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마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주된 일 입니다.

Q 4.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A 4. 현지 Staff중의 한명인 Alex가 주로 숙소에서 아침 저녁을 준비하고 점심은 활동으로 인해 대학교 옆 식당과 같은 곳에서 사먹게 됩니다.

Q 5. 어떤 숙소가 제공되나요?

A 5. 라온아띠 멤버 5명이 독립적으로 한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 두 개가 있는 2층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사설 무장 경비가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Q 6.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가 있나요?

A 6. 지금 보시는 보고서를 영문판으로 만들어 매 달 제출하며 이외에도 큰 활동이 있을 경우 그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Q 7. 필리핀에서 모든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나요?

A 7.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만 대부분은 특히 활동 무대가 되는 마을의 경우 대부분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Q 8. 일을 할 때 현지어(타갈로그어)와 영어 중요도 비중은 어떤가요?

A 8. 현지 staff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며(말하기, 듣기), 마을

조직 활동을 위해서는 타갈로그어 사용이 가능하다면 엄청난 득이 됩니다. 따라서 현지 YMCA에서는 영어 수업과 타갈로그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Q 9. 기후는 어떤가요?

A 9. 필리핀의 날씨는 두 가지 입니다. 덥거나 혹은 매우 덥거나. 4, 5월이 여름에 해당되는데 여름이면 햇살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한국의 여름 보다 습하지는 않습니다. 새벽의 경우에는 약간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Q 10. 필리핀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나요?

A 10. 필리핀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럼, 람바노프(전통 술)등을 즐기지만 주로 맥주를 즐겨 마십니다. 특이한 점은 여럿이 술을 마실 때 잔을 하나만 사용하여 한 사람이 다 마시면 다음 사람에게 술을 건내며 차례 차례 돌려 마십니다. 주로 여름에는 맥주에 얼음을 넣어 먹습니다.

Q 11. 필리핀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나요?

A 11. 필리핀 사람들은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여 파티를 열게 되면 백이면 백 노래방기계를 빌려다 설치 합니다. 필리핀 방문계획이 있다면 유명 팝송을 몇 곡 외워두면 좋습니다. 타갈로그어 노래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입니다.

Q 12.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A 12.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농구를 즐겨보고 즐깁니다. 특히 농구는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 중 일부 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농구 코트를 자유롭게 누비는 필리핀 젊은이들을 보면 신기할 정도 입니다.

Q 13. 필리핀 사람들의 주식은 무엇인가요?

A 13. 기본적으로 쌀밥을 항상 먹으며 돼지와 닭을 즐겨먹습니다. 간장을 주된 양념으로 쓰며 특이 한 점은 음식에 식초를 아주 많이 사용하여 처음 마주 친다면 상당히 새콤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Q 14.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요?

A 14. 뜨거운 날씨 탓에 필리핀 사람들

은 주로 10시경에 잠을 자고 아침 6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일을 시작 합니다.

Q 15. 필리핀의 화장실문화는 어떤가요?

A 15. 현재 대부분의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기 커버가 없으며 서민들의 경우 휴지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Q 16.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A 16. 교통수단으로는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있습니다. 지프니는 미군이 사용하던 트럭을 개조한 것으로 시내 버스 역할을 하며 트라이시클의 경우 오토바이를 개조 한 것으로 택시 역할을 합니다.

Q 17. 생필품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A 17. 웬만한 생필품의 경우 마을 곳곳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 샴푸와 치약을 사용합니다.

Q 18. 현지 인터넷 서비스는 어떤가요?

A 18. 현지 인터넷 속도는 느린 편이며 한국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신청하면 설치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현재 라온아띠의 경우 2달째 대기중입니다.

Q 19. 어떤 형태의 전기 플러그를 사용하나요?

A 19. 11자 형태의 전기 플러그를 사용하며 현지에서 쉽게 어댑터를 구매하여 한국 전자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Q 20. 현지 물가는 어떠한가요?

A 20. 한국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일반적으로 1/4 수준)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이 한국의 1/10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현지 인들에게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세와

전기세는 비쌉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약 값은 한국보다 비쌉니다.

Q 21. 사람들의 시간 약속은 어떤가요?

A 21. 필리핀 사람들은 시간약속에 둔한 편입니다. 약속을 정하고 30분 혹은 1시간 정도가 늦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22.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A 22. 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피노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며(현재 김탁구와 시크릿 가든, 아내의 유혹 등이 공중파를 통해 상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 가요 또한 즐겨 듣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Q 23. 휴대전화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23. 필리핀에서는 대부분이 선불식 전화를 사용합니다. 핸드폰과 sim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해서 사용하며 핸드폰 충전은 구멍가게에서도 손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Q 24. 현지 치안은 어떠한가요?

A 24. 생활하면서 불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지만 총기관련 강력범죄들이 종종 발생 하는 편입니다. 늦은 저녁

한적한 곳을 누비는 것은 좋지 않으며 많은 돈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 비교 한다면 그렇게 안전 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 25. 현지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나요?

A 25.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의 경우 구매가 쉽습니다. 하지만 Cabanatuan의 경우 구매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Q 26. 필리핀 특산물은 무엇인가요?

A 26.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망고가 생산된다고 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파야, 바나나와 같은 질 좋은 열대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Q 27. 현지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A 27.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가장 힘들습니다. 이를 제외한다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Q 28. 가장 좋아하는 필리핀 음식이 있다면?

A 28. 돼지고기 시식 이라고 불리는 음식을 즐깁니다. 돼지고기를 바비큐하여 잘게 썬 다음 매운고추 양파, 마늘 등과 함께 마요네즈를 섞어 요리 한 것으로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Q 29.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A 29. 한국 가요와 드라마를 제외 한다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Q 30. 해외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가 있다면?

A 30. 우선적으로 건강한 신체가 필수입니다. 아프다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현지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 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그들에게 단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자신의 배움을 위해 개방 했을 때 더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아이타, 그곳에서 있을 일들을 기대하며

4월 30일 이상엽 단원, 이수진 단원, 박진영 단원은 5월 2



일부터 이들이 참여하게 될 Work Camp 장소에 답사를 떠났다. Aeta는 이들이 머무는 Cabanatuan City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이들이 처음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700여명의 사람들이 이동해 왔지만 주변의 화산의 활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그곳을 떠났고 지금은 약 70가구가 남아있다.

현장에 도착한 라온아띠 단원들은 신부님의 도움으로 각종 식물들과 나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주변 자연에 관한 이

야기들을 들었다. 또한 이들은 이들이 활동하고 머물 초등학교에 들러 교실과 주변 환경을 둘러 보았다. 이수진 단원은 “잠깐 만난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순수해 보였으며 그들이 쿠야 윤과 아떼 영을 찾는 것을 보고 그들의 진심은 아직도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좋아 보였다.” 며 욕심인 줄은 알지만 내 진심도 그들에게 통하길 바란다면 그녀의 작은 소망을 전했다.

한편 라온아띠 단원들은 오늘 5월 2일 월요일부터 Work Camp에 참여해 거기서 있을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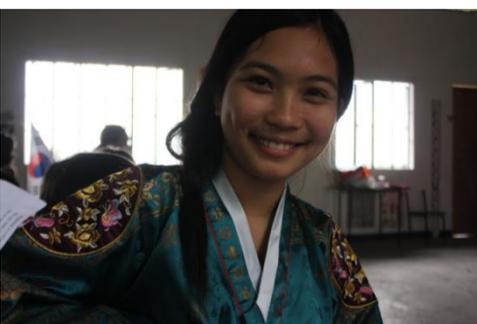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라온아띠, 한국문화의 날 개최해



특명,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라

4월 29일 라온아띠 멤버들은 지난 한 달간 Day care center(이하 DDC)에서의 프로그램을 끝마쳤다. 이날 행사는 그들이 한달 전 계획했던 한국 문화의 날이라는 주제 아래에 문화 교류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4월 28일 행사 전날 저녁 라온아띠 단원들은 한국 문화의 날에 공연할 퍼포먼스(태권댄스, 태권도 태극1장 시범), 단소와 피리 연주, 전통 민요, 그리고 그날 점심으로 제공될 비빔밥 재료를 만드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4월 29일 아침 8시 반 그들은 행사를 위해 준비를 마치고 DDC로 향했다. 오전 9시, 그들은 지난 주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로 실내를 장식하고 각종 한국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포스터(한국의 위치, 한국의 국화, 한국의 국기, 한국의 전통춤, 한국의 전통의상, 한국의 언어)로 DDC한쪽 벽면을 장식했다. 이날 오전 10시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는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상엽 단원의 진행과 Kimberlyn(Valle cruz 청소년 중 한 명, 위 사진의 인물)의 통역으로, 모든 단원들과 MC Kimberlyn이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피리를 배워온 박진영 단원의 아리랑과 한 오백년 독주를 시작으로 이수진 단원과 이상엽 단원의 단소합주, 그리고 우리의 전통 민요 아리랑과 뱃놀이로 한국 소리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고 중국말을 쓴다니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Valle cruz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한국의 올바른 문화를 전하고 즐기기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딱딱하고 단순한 정보 전달 방식 보다는 즐기며 풀 수 있는 OX퀴즈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 영토의 일부이고 한국말은 단지 중국말의 방언 정도인 줄 알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이제 한국은 한국이며, 한국인들은 한국 고유의 말과 글자인 한글을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Valle cruz의 청소년들 중 Kelvin의 기타연주를 기본으로 한 Gilbert의 노래 공연은 이날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으며 한달 간 라온아띠 단원들과 함께 태권도 수업을 해온 그들과의 태극 1장 시범은 라온아띠 단원들과 청소년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고추장, 필리피노에게는 "Volcano Sauce"

이 날 점심으로 제공된 비빔밥은 그들의 예상보다 큰 인기가 없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Masarap" (한국말로 맛있다라는 뜻)을 외치며 한 그릇을 푹딱 비워냈지만 Day care center 아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점심으로 각종 야채들과 고추장은 아이들의 관심을 사기보다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라온아띠 단원들은 남은 음식들을 DCC주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배달하는 재치를 보였다. 한편 비빔밥 제공을 끝으로 이날 행사와 이들이 준비했던 한 달 간의 프로그램은 마무리 되었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우리의 두 번째 Fiesta! BRGY Luar 피에스타에 가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상반기 각각의 바랑가이(BRGY: 행정구역 명칭 중의 하나.)에서 페스티벌이 열린다. 대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 모두가 페스티벌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라운아씨는 3월에 첫 피에스타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퍼레이드에도 참여하여 좋은 인상을 남겼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프리마베라에서 30분가량 떨어진 교외에 위치한 Luar에서 열린 피에스타에 참여하게 되어 일주일 전부터 공연을 위한 준비에 열을 올렸다.

YMCA Nueva ejiya 보드멤버 중 한명인 MR. Isagani의 초대로 방문하게 된 Luar는 작지만 필리핀의 여느 바랑가이가 다 그렇듯 활기차고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다들 온 힘을 다해 피에스타를 즐기는 그런 곳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바랑가이 Concil의 집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한 후 근처 재래시장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시 30분부터 시작된 공연은 마을의 공터에서 진행 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하는 Street dance 공연으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Modern dance가 아닌 그들 지역의 주 생산품은 양파를 주제로 같은 음악을 배경을 가지고 창작 댄스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집적 의상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은 모두 학생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 할 커다란 추억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라운아씨는 이 날 준비한 한국 대중가요에 맞춘 댄스와 태권체조, 박진영 단원이 준비한 피리 연주를 무사히 끝마쳐 호평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 피곤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많은 경험을 나눈 우리의 다섯 용사들은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Basketball is a language



2010년 4월 16일 토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4시가 되면 이상엽(27) 라운아씨는 집 근처에 있는 농구 코트로 향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필리핀의 젊은 청년들은 Sampei라고 외치며 반갑게 인사를 한 후 곧바로 몸풀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몸을 푼 후 곧바로 게임에 들어간다. 그렇게 코트를 누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 설새 없이 내달리는 필리핀의 농구 스타일 탓에 어느덧 온몸은 땀으로 젖고 숨을 가쁘게 내뿜는다. 슬리퍼를 신고 운동을 하는 필리핀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저 신기 할 따름이다.

흔히들 한국에서 사람들이 말하길 남자는 술과 운동이면 곧 바로 친해 질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그 술이 소주라면 필리핀에서는 red horse이며 그 운동이 축구라면 여기서는 농구이다.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농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운 날씨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농구의 인기를 반증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농구를 즐기러 오는 Chan(22)은 “일과를 마치고 항상 농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주말이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농구를 즐긴다. 필리핀에서 농구는 사람들을 잇는 하나의 수단이며 언어이다. 필리핀에선 모두가 코비이고 마이클 조던이다.” 라 말하고선 다시 한 게임 하자며 필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흘러가는 땀과 함께 해가 저물어 간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조현경 기자 <ggle1501@nate.com>

박진영 단원, 마을 치료사를 만나다.
발목 부상당해 신의 손을 찾아가다.



지난 6일, 박진영 단원이 YMCA 태권도 수업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던 도중 발목 부상을 당했다.

발목을 접질린 당일, 그는 크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였고, 계획대로 태권도 프로그램 진행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 부상의 정도는 훨씬 심해지고, 붓기가 차올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4월은 매일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던 터라 많은 활동을 해야만 했기에 깁스붕대를 할 수가 없었고, 병원에 가기엔 무조건 깁스를 권장할 것 같았기에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이틀이 지나도록 쾌차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간단한 치료를 위하여 마을의 치료사(Local Healer)를 찾아가다.



마을의 치료사를 찾아가던 그는 별다른 의료기기 없이 몇 분 동안 발목 마사지만을 치료법으로 하는 치료사를 믿지 못하였고, 고통이 따르는 무리한 치료법을 달가워하지 않아 금세 자리를 떠났다.

그 후, 고통이 더욱 심해지자 ‘만일 치료사를 믿는다면 질병을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다’는 Ate Mayette의 충고를 받아들여 다시 한 번 치료사를 찾았고, 믿음을 가지며 고통 속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는 다음 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뚝거리며 혼자서 이리 저리 걸어 다닐 수 있었고, 3일쯤 지났을 무렵 붓기가 가라앉더니 별다른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었다.

아직 그의 발목이 완쾌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조심스레 다니고는 있지만 그는 마을 치료사를 만난 후 “플라시보 효과가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몸소 느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단원들에게 마을치료를 만나볼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BMW, 한 걸음 더 진화하다.

지난 달, 4.1 서라운드 앰프를 장착함으로써 그 위용을 세상에 알렸던 BMW가 더더욱 진화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전선과 전선으로 연결되어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도사리던 시동키 부분이 새 부품으로 교체되었고, 임시방편으로 비닐 팩을 뭉쳐서 틀어막아왔던 주유구에 덮개를 장착하여 외관을 단정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깨어진 후방램프부분은 세련된 원형의 새 램프로 교체되어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또한, 가장 눈부신 변화로 손꼽히는 뒷 좌석 펜스 및 의자 설치는 안전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편의성, 외관디자인을 모두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비약적으로 진화하는 BMW의 당당함을 한 눈에 말해주고 있다.

Bro Alex와 Kuya Morito의 마법 같은 손길을 거치면서 끝없이 진화하는 BMW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라온아띠 멤버들은 “이따금 우리의 BMW가 과연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지 미래모습을 상상하며 놀라곤 한다” 고 말한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라온아띠, MR양의 18살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아



제 생일을 맞이한 그녀를 위해 18명의 친구들이 한 명씩 그녀에게 다가가서 촛불을 키고 축하인사를 전하던 모습, 18명의 남자들이 한 명씩 장미 꽃을 건네주면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던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 필리핀의 또 다른 파티 문화를 알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파티의 진행에 많은 감탄을 하기도 하였다.

지난 4월 29일, 라온아띠 팀은 MR(18)의 18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그녀를 축하해 주기 위해 Valle Cruz를 찾았다.

특히, 이번 생일은 그녀의 ‘Debut Party’로써 진정한 성인이 된 그녀를 축하하는 특별한 날이었다.

홈스테이 기간 동안 박진영 단원이 머물렀던 Kelvin의 친척인 그녀는 Mr.Morito와 라온아띠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라온아띠 팀은 ‘One big family Program’과 ‘YMCA 태권도 마지막 클래스’를 마친 후, 피곤한 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티에 참석하였다.

파티의 시작과 함께 그들은 ‘한국 대중가요 댄스’를 선보였고, 그날의 주인공인 MR과 더불어 많은 파티 참가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였다.

한편, 조현경(23) 단원은 “일반적인 생일 파티라고 생각하고 참석하였는데 파티의 준비과정과 그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18번째 생일을 맞아 축하인사를 전하던 모습, 18명의 남자들이 한 명씩 장미 꽃을 건네주면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던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 필리핀의 또 다른 파티 문화를 알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파티의 진행에 많은 감탄을 하기도 하였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삼겹살 파티

지난 4월 12일 라온아띠 숙소에서는 파티가 열렸다. 그날 알맞게 도착한 이상엽 단원의 소포에서 한국산 쌈장과 함께 조출하지만 성대한 삼겹살 파티가 열린 것이다. 일찍이 일정을 마친 라온아띠 멤버들은 SM몰로 향해 필리핀산 삼겹살과 한국산 소주, 그리고 양파, 상추, 배추, 오이 등 각종 야채들을 구입해 집으로 향했다. 한참 동안 다음날 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난 후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 좋지 않은 프라이팬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수진 단원과 박진영 단원은 삼겹살을 굽고, 이상엽 단원은 오이소주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김이민경 단원은 샐러드를 만드는 열정을 보였다. 이윽고 완성된 저녁 만찬은 한국 식당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완벽 그 자체 였으며 라온아띠 멤버들은 지난 한달 반 동안 참고 있던 삼겹살에 대한 갈망을 단숨에 해결했다. 비록 중국산이지만 한국김치 비슷한 “KOREAN KIMCHI”와 함께 행복한 만찬을 즐겼다.

끝으로 단원들은 다음에는 꼭 떡볶이에 도전하자며 열의를 다졌고, 다음으로 배달될 박진영 단원의 소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5월에 만나요~